

미성년자 위협·성희롱... '교육방송' 맞습니까?

〈버스터즈 김채연〉

17년째 방송 중 어린이프로그램 최영수·박동근 부적절 행동 비난 EBS, 안일한 대처로 화 더 키워 국민청원 빗발치자 뒤늦게 수습

EBS 어린이프로그램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가 최근 불거진 출연자 성희롱 및 폭행 논란 여파로 제작을 중단했다. 논란이 제기된 직후 안일한 대처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거세다.

EBS가 12일 "교육방송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사태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니하니' 제작을 중단하고 제작진을 전면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10일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보니하니)의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촉발됐다. 프로그램에서 '당당맨' 캐릭터를 맡은 개그맨 최영수가 진행자인 그룹 버스터즈 멤버 김채연을 향해 손을 번쩍 들어 때리는 듯한 동작을 취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실제 폭행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의 진행자 김채연(오른쪽)과 의웅. 2003년 시작해 EBS 대표 어린이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최근 출연자 성희롱·폭행 논란에 휘말렸다. 사진제공 | EBS

이 있었는지는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지만 동작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프로그램에서 '딱니' 캐릭터를 맡은 개그맨 박동근도 과거 유튜브 생중계 방송에서 김채연에 성적으로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욕설까지 내뱉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EBS는 최영수와 박동근의 언행에 대한 지적이 확산되자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폭행 등은) 사실이 아니다"며 "추측과 오해는 자제해 달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고,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한 뒤 최영수와 박동근을

출연정지 시키고 관련 콘텐츠를 온라인 등에서 모두 삭제했다.

시청자들의 분노는 김채연이 15세 미성년자라는 점, '보니하니' 역시 교육방송인 EBS가 어린이 시청자를 대상으로 17년째 방송 중인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에서 가중되고 있다. 프로그램 홈페이지에는 12일 오후에도 "안일한 제작진의 대처에 화가 난다"는 등 시청자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이날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200여 건에 달하는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EBS는 '뒤늦은 대처'가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 의지를 밝혔다. '보니하니' 논란을 야기한 제작 시스템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긴급 대응단을 꾸려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폭행 논란과 관련해 최영수는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채연의 소속사 마블링은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카메라에 찍히지 않아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면서도 "문제가 된 장면의 잘못을 인지했고, 제작진으로부터 재발방지를 약속 받았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조여정 전성시대...안방극장까지 흥행 접수

'99억의 여자' 시청률 11% 순항 연말 'KBS 연기대상' 후보 올라



조여정

배우 조여정이 스크린에 이어 안방극장에서 흥행 파위를 과시하고 있다.

조여정 주연의 KBS 2TV 수목드라마 '99억의 여자'가 방송 3회 만인 11일의 시청률이 11%(닐슨코리아)까지 올랐고 12일에도 기세가 이어지면서 상승장구하고 있다. 주인공 조여정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절망의 인생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처절하게 발버둥치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표현해 드라마 시청률을 견인하고 있다.

조여정의 활약은 자연스럽게 연말 연기대상에서 어떤 상을 받을지 여부로 이어지고 있다. 드라마 방송 시기가 시상식 시즌과 겹치기도 했지만 KBS에서는 조여정의

활약에 일찌감치 기대를 드러내왔다.

조여정은 31일 열리는 '2019 KBS 연기대상'에서 미니시리즈 부문 우수상 후보에 올랐다. 최다 득표일 경우 최우수상 후보로도 자동 진출한다. 드라마가 방송을 시작한지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상승세를 탄 데다, 초반부터 조여정의 활약이 펼쳐지는 만큼 후보 진입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반응도 나온다.

1997년 패션잡지 모델로 데뷔한 조여정은 20년 넘게 활동하면서 드라마로 받은 트로피가 불과 2개뿐이다. 2017년 '완벽한 아내'로 KBS 연기대상 중편드라마 부문 우수상, 2016년 '베이비시터'로는 연작·단막극상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그 분위기가 다르다. 주연영화 '기생충'의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시작으로 조여정 역시 청룡영화상과 부일영화상, 춘사영화제에서 연이어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최근에는 뉴멕시코 비평가협회로부터 여우조연상을 받으며 해외에서도 실력을 증명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시각스러운 손 하트 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가 12일 서울 목동 SBS사옥에서 열린 SBS 모비딕 쇼 품드라마 '농부사관학교2'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카메라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양 손으로 하트 포즈를 취하고 있다. 꽃무늬 바탕에 독특한 프릴이 강조된 원피스를 입은 윤보미가 수줍은 듯한 미소로 귀여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marineboy@donga.com

젊은 대통령 변신...정우성의 새로운 도전

'정상회담' 속 정우성 호기심 자극 얹힌 욕망 그린 '지푸라기'도 주목



정우성

배우 정우성이 내년 스크린에서 색다른 변화를 시도한다. 올해 '증인'을 통해 영화 시상식 등에서 남우주연상 휩쓴 성과를 또 다른 무대로 이어간다.

정우성은 내년 두 편의 영화를 차례로 내놓는다. 전도연과 호흡을 맞춘 '지푸라기'라든가 잡고 싶은 짐승들과 박도원·양우석 감독과 재회한 '정상회담'이다. 의문의 사체를 둘러싼 미스터리 스릴러와 국제 정세를 반영한 전쟁 위기의 이야기까지 각기 다른 색깔의 작품이다. 두 편 모두 촬영을 마쳤다.

정우성은 올해 '증인'으로 백상예술대상에 이어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까지 연이어 차지하면서 배우로 또 다른 전기를 맞

고 있다. 1994년 데뷔해 꾸준히 영화에 참여해왔지만 작품은 물론 연기로도 인정받으면서 주연상 성과를 거두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특히 '정상회담'이 눈길을 끈다. 2017년 정우성이 주연한 영화 '강철비'의 제작진과 배우들이 다시 뭉친 작품으로 남북미 정상회담 도중 벌어진 북한의 쿠데타로 정상들이 핵 잠수함에 납치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남북한 전쟁 위기를 다룬 '강철비'와도 연속성을 띤다.

영화에서 정우성은 젊은 대통령 역이다.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성품을 가진 대통령의 모습이 그를 통해 어떻게 완성될지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동시에 내놓는 '지푸라기'라든가 잡고 싶은 짐승들은 전혀 다른 색깔의 영화다. 서로 다른 욕망에 휩싸인 인물들이 얹히고설켜 벌어지는 이야기로 정우성은 전도연, 윤여정, 배성우, 정만식까지 개성 강한 배우들과 극을 이끈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연예

11

2019년 12월 13·14일 주말판

스포츠동아



12일 서울 압구정CGV에서 열린 영화 '남산의 부장들'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배우 박도원, 이병헌, 이희준과 우민호 감독(왼쪽부터).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위풍당당' 실화영화

박정희 암살 그린 '남산의 부장들' 신정아 사건 연상 '속물들'도 화제

"물랐던 현대사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했습니다."

이병헌 주연의 영화 '남산의 부장들'(제작 하이브미디어코프)의 우민호 감독이 실화 사건을 택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외환은행 횡령 매각 사건 소재의 영화 '블랙머니'가 245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실화의 힘을 과시한 데 이어 실제 사건을 극화하는 영화들이 계속된다.

내년 1월 개봉하는 '남산의 부장들'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사건을 그린다.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살해하기 전, 40일간의 이야기다. 1990년부터 2년간 동아일보에 연재된 동명 논픽션 베스트셀러가 원작이다.

우민호 감독은 "영화에 나오는 사건들은 실제 벌어진 일들로 구상했지만 그 사건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인물들의 감정이나 심리는 영화적으로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죽인 중앙정보부장을 맡은 이병헌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이지만 장르적으로는 세련된 누아르의 매력"이 있다"고 말했다.

12일 개봉한 유다인 주연의 '속물들'(제작 주피터필름)에서도 실제 사건의 향기가 난다. '남산의 부장들'이나 '블랙머니'처럼 특정 사건을 극화하지 않았지만 미술계에서 벌어진 술한 비리와 부정을 모티브 삼아 영화 곳곳에 넣었다.

특히 2007년 이른바 '신정아 사건'으로 불린 성곡미술관 불법 비자금 의혹을 비롯해 2013년 오리온 그룹 회장 부부의 횡령 사건처럼 미술관을 매개로 벌어지는 재벌가의 비리가 연상된다. 신아가 감독은 "미술계 관계자들을 통한 취재와 실제 사건을 녹여 극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머느리가 암바 가는 그날까지!

할매니가 하이라키 차는 그날까지!

각투기 예능의 끝판왕

이중TV

이중TV 유튜브채널 인기 폭발